

창업 기업의 출발을 응원하다

부산시청 일자리창업과&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줄었던 부산시에 다시금 활기가 돌고 있다. 올 5월에는 부산 크리에이티브샵이 리뉴얼 오픈하면서 소비 시장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창업 기업의 출발을 지원하고 부산시 홍보에도 앞장서고 있는 부산 크리에이티브샵을 다녀왔다.



(왼쪽부터) 크리에이티브샵 허성희 부매니저,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업과 손현아 주무관, 부산경제진흥원 조아영 주임, 부산경제진흥원 조성호 창업기반조성팀장, 크리에이티브샵 지은혜 사원

창업 기업의 샌드박스, 부산 크리에이티브샵

부산시 남포동과 부평동을 잇는 광복로는 구 시청 앞부터 광복 패션의 거리와 국제시장, 돼지족발 골목 등 부산 관광지를 관통하는 대표 도심 도로다. 광복로 중심에는 옛 광복동 우체국 건물을 개조한 ‘부산 크리에이티브샵’이 위치한다. 부산시 일자리창업과와 부산경제진흥원이 협업해 2017년 개소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부산시 일자리창업과는 부산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로, 공공 기관 판로 개척을 돕는 ‘창업 기업 공공 판로개척 지원사업’과 전자상거래 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거점 센터인 ‘e-커머스 비즈센터’를 구축하는 등 창업 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그중 크리에이티브샵은 창업 기업의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해 초기 판로 개척을 돕고, 부산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 부산의 기업을 알리고 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부산시를 찾는 관광객의 발길이 줄면서 오프라인 매장 역시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크리에이티브샵은 위축된 소비 심리를 다시 활성화하고 쇼핑 트렌드 변화에 발맞추기 위해 공간을 재단장하고 비대면 판매 채널을 강화하며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창업 기업의 신제품과 클라우드 펀딩 중인 프로젝트를 선보이는 1층 공간은 판매와 더불어 홍보와 전시 기능을 강화했다.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스탠드형 전시대를 사용했으며, 제품별 스토리를 함께 배치해 자연스럽게 제품과 기업이 같이 홍보되도록 공간을 꾸몄다. 2층은 라이브 커머스가 가능한 영상 스튜디오, 팝업 스토어 등을 구축해 판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 기업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스튜디오에서는 제품 홍보 영상을 촬영하거나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만들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창업 기업 및 지역 작가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액세서리 만들기, 업서 그리기 등 다양한 체험 클래스를 제공한다.

이번 리뉴얼을 담당한 부산시 일자리창업과 손현아 주무관은 크리에이티브샵이 창업 기업을 위한 소름이자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업 기업은 초기 판로 개척에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품을 홍보하고 전시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와 공공 기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부산 크리에이티브샵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창업 기업이 상품을 전시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창업 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여러 가지 방식의 판매와 홍보에 도전해보면서 실패도 하고 경험도 쌓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창업 기업의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크리에이티브샵

온·오프라인 연계한 옴니채널 구축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제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기존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IT 모바일 기술을 융합한 옴니채널 쇼핑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자사 물과 스마트스토어팜을 개설해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SNS를 활용한 이벤트와 광고, 마케팅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된 요즘 쇼핑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들이 매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제품을 찾아보고 구매까지 이어지는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센터 조성호 팀장은 자사 물통을 통해 제품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 기업이 홍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덧붙인다.

“작년에 많이 판매됐던 제품 중 하나로 부산 관광지를 그린 그림엽서가 있는데, 개인 작가분의 제품이라 온라인 홍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품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이 정보를 찾기 힘들고, 기존 구매자들도 재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장을 방문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온라인 물이 개설되면서 창업 기업은 물론 소규모 작업을 하는 작가도 자신들의 제품을 좀 더 안정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의 멋과 개성을 담은 아이디어 상품들

Made in Busan

현재 온·오프라인 몰에 입점한 기업은 72개다. 부산시 소재 기업에 한해 입점이 가능하며, 창업지원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여러 분야의 심사위원을 섭외해 정기적으로 품평회를 열고 제품의 차별성과 시장성, 창업자의 의지 등을 기준으로 입점 기업을 선정한다.

간단한 업서나 문구류부터 가방과 의류,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데 최근에는 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업사이클링 제품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변에 버려진 파라솔로 만든 방파제 쿠션, 부산 시내의 폐현수막으로 제작한 가방 등은 환경에도 이로우며 부산을 상징하는 요소가 담겨 있어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부산 명물인 씨앗호떡과 물떡을 의인화한 ‘씨떡물떡’ 캐릭터도 인기 아이템. 재개장 후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많은 이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매장의 전반적 운영을 담당하는 지은혜 매니저는 크리에이티브샵이 여행의 시작이자 마지막이 되길 바란다고 말한다.

“부산을 찾은 관광객들이 주로 방문하시는데, 그래서인지 캐리어를 끌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부산역과 가깝고 국제시장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다 보니 이곳에서 부산 여행을 시작하거나 마무리 짓는 분도 많습니다.”

창업 기업들은 판매뿐 아니라 홍보 면에서도 만족스럽다는 반응이다. 다른 기업의 제품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어 좋은 자극이 되기도 한다. 손현아 주무관은 크리에이티브샵을 발판으로 부산의 특색 있는 창업 기업이 더 넓은 시장으로 뻗어나가기를 바란다.

“이곳에는 창업 기업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담긴 제품이 가득합니다. 세계 유일의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죠. 창업 기업들이 부산시의 공신력과 인지도를 바탕으로 더 많은 유통망에 진출하기를 희망합니다.”



관광객의 발길과 눈길을 사로잡는 크리에이티브샵의 내부 모습

글 전미희 사진 장은주

해변열차 타고 떠나는 부산 여행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동해남부선에 다시 열차가 달리기 시작한다. 부산 바다의 아름다움을 싣고 떠나는 해운대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이다. 미포부터 청사포를 거쳐 송정까지, 열차 안에서 만난 부산의 낭만적인 여름.



미포정거장을 출발하는 관광 열차 스카이캡슐

바다 풍경을 1열에서 직관하다, 해변열차&스카이캡슐

‘부산’ 하면 흔히 해운대 해변과 남포동 자갈치시장, 광안리, 태종대를 떠올린다. 올여름엔 좀 더 특별한 부산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해변열차에 올라타보자. 해운대블루라인파크는 동해남부선 옛 철도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재개발한 관광 시설로, 지난 10월 완공돼 바다를 보며 달리는 관광 열차인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이 개설했다. 동해남부선은 일제가 자원을 수탈하고 일본인의 해운대 관광을 위해 1935년 개통한 노선으로, 해방 후에는 무궁화호로 이용하다가 2013년 이설해 복선 전철화하며 2016년에는 영덕까지 가는 동해선으로 편입됐다.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동해남부선에 바다를 보며 달리는 관광 열차 해변열차와 스카이캡슐로 재탄생한 것이다. 열차뿐 아니라 산책로, 쉼터가 어우러진 철길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도 사랑받는다. 해변열차는 해운대 미포에서 출발해 청사포, 송정에 이르는 4.8km 구간을 달리는 완행열차로, 바다와 가까워 수려한 해안 절경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다. 달맞이터널, 다릿돌전망대 등 부산의 명소를 한 번에 둘러볼 수 있다는 것도 이점이다.

2량으로 이뤄진 해변열차는 미포정거장-달맞이터널-청사포정거장-다릿돌전망대-구덕포-송정정거장 등 총 여섯 구간을 왕복한다. 내부에는 바다를 향해 나무 벤치가 마련돼 있다. 커다란 차창 밖으로 바다 풍광이 느리게 스쳐 지나간다. 지금까지 보았던 부산 바다와는 또 다른 매력이다. 네모난 차창이 프레임이 되어 영화를 보는 듯한 인상을 전한다. 여행에 낭만이 더해지는 순간이다.

해변열차 위를 달리는 스카이캡슐은 7~10m 공중 레일에서 해안 절경을 관람할 수 있다. 최대 4인까지 탑승 가능해 가족, 연인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기에 제격이다. 평균속도 4km/h로 달리며 미포정거장에서 청사포정거장까지 편도 운행하며, 운행 시간은 약 30분. 해운대해수욕장과 동백섬, 광안대교를 바라보며 이기대와 오륙도까지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62번길 13 미포정거장

운영 시간

11~4월 09:30~18:30 / 5~6월, 9~10월 09:30~19:30 / 7~8월 09:30~20:30

이용 요금

해변열차 1회 이용 7,000원, 2회 이용 1만원, 자유 이용 1만3,000원 / 스카이캡슐 4인승 기준 편도 4만4,000원

문의

051-701-5548, bluelinepark.com



지상의 철길 위를 달리는 해변열차와 공중 레일 위를 달리는 스카이캡슐

*** 추천 맛집_해운대기와집대구탕**

여독과 전날의 숙취를 해결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을까?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자리한 ‘해운대기와집 대구탕’은 시원하고 개운한 맛이 일품인 대구탕을 선보이는 곳이다. 기와집 안으로 들어서면 벽을 가득 메운 유명인들의 서명에서 맛집 기운을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릴 때면 영화인들이 해장하러 자주 들른다고. 대구탕 단일 메뉴로, 대구를 큼직큼직하게 썰어 무와 함께 푹 끓여내 깊고 진한 맛을 자랑한다. 맑은 국물을 먹다가 절반 정도 남으면 양념을 풀어 매콤하게 먹는 방법도 추천한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104번길 46

영업시간 08:00~21:00(명절 휴무)

메뉴 대구탕 1만1,000원

문의 051-731-5020



오직 대구탕 단일 메뉴로 승부하는 해장 맛집, 해운대기와집대구탕

작은 포구가 자아낸 절경

해변열차의 중간 지점이자 스카이캡슐 정거장이 있는 청사포는 해운대와 송정 사이에 위치한 작은 포구다. 일출과 노을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이곳은 부둣가에 세워진 청사포 쌍둥이 등대와 소박한 마을 정경이 어우러지면서 황홀한 풍경을 자아낸다. 청사포정거장을 나서면 낡은 버스 정류장을 개조한 '청사포 감성버스 정류장'이 보인다. 한국관광공사의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돼 2020년 1월 말 준공되었으며, 정류장 내부에는 청사포의 옛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보는 푸른 모래 전시관이 마련돼 있다. 계단을 따라 정류장 위로 올라서면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청사포는 아름다운 풍경뿐 아니라 강태공에게는 바다낚시 포인트로 알려져 있으며, 관광객에게는 조개구이 거리로 유명하다. 해안 주변으로 길게 늘어선 횡집에서 포구의 경치를 안주 삼아 싱싱한 해산물을 맛보는 것도 청사포 여행의 묘미 중 하나다.

청사포 관광을 마쳤다면 다릿돌전망대도 놓치지 말고 들를 것. 청사포 다음 정거장인 다릿돌전망대는 해수면으로부터 20m 높이에 72.5m 길이로 바다를 향해 쪽 뻗어 있으며, 데크 중간에는 투명 바닥이 설치돼 바다 위를 걷는 듯 짜릿함을 선사한다. 전망대 앞에서부터 해상등대까지 5개의 암초가 징검다리처럼 늘어서 다릿돌전망대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려한 해안 경관과 청사포 포구의 정경이 더해져 잊지 못할 한 장면을 완성한다.



여행 중 만나는 청사포 쌍둥이 등대와 다릿돌전망대의 풍경

*** 추천 맛집_비비비당**

해운대 달맞이고개에 있는 건물 ‘해 뜨는 집’ 4층에는 바다 뷰로 유명한 전통 찻집 ‘비비비당’이 자리한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고풍스러운 한옥 인테리어가 손님을 맞이하는데, 커다란 창문 너머로 넘실대는 바다가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진다. 녹차, 꽃차를 비롯한 10여 가지 차와 빙수, 단팥죽, 다식 등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며, 매장에서 직접 발효시킨 식재료를 사용해 진한 향과 깊은 맛을 자랑한다. 특히 호박빙수는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 있어 누구나 좋아할 만한 대표 메뉴 중 하나다.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239-16

영업시간 10:30~22:00(월요일 휴무)

메뉴 우전 녹차 1만원, 호박빙수 1만원, 단팥죽 1만원

문의 051-746-0705



달맞이고개의 전망 좋은 찻집, 비비비당

부산의 서핑 맛집, 송정해수욕장

미포에서 출발한 해변열차는 청사포와 구덕포를 지나 송정에 종착한다. 열차에서 내리면 오래된 역사가 승객을 반긴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송정역 역사는 1941년에 지은 단층 목조 건물로, 당시의 건축양식을 살펴볼 수 있어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현재는 역사 전시장이자 해변열차 매표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역사와 양쪽 150m 길이의 철로, 승강장까지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어 잠시 시간 여행을 즐기기에 좋다.

송정역 낡은 문 너머로 펼쳐진 푸른 바다가 눈에 담긴다. 송정해수욕장은 최근 해양 레저를 즐기기에 방문하는 사람이 늘어나며 서핑 성지로 떠올랐다. 수심이 얇고 파도와 바람의 세기가 적당해 초급 서퍼가 서핑을 배우기에 적합하다. 또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지점이라 여름엔 남쪽 파도를, 가을과 겨울엔 북동 파도의 영향을 받아 사계절 내내 서핑이 가능하다. 여름뿐 아니라 겨울에도 송정 바다가 활력을 잃지 않는 이유다.

송정은 서퍼들에게는 서핑 명소지만 부산 대학생들에게는 MT 성지이기도 하다. 새 학기 시즌이면 대학생들로 북적이는데, 최근에는 오래된 민박촌 골목길을 벽화 거리로 조성해 마을 분위기가 더욱 밝아졌다. 지역의 특색을 담아 송정 바다를 그림으로 옮겼다. 골목길의 정취와 벽화가 어우러져 이국적 풍경을 자아낸다.

한낮의 태양이 제법 뜨겁다. 이 계절만을 기다렸다는 듯 해변에 사람이 하나둘 늘어난다. 햇살 아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보드를 들고 바다로 향하는 서퍼들, 잔잔하게 일렁이는 파도까지. 울여름 누군가의 추억으로 남은 부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사계절 내내 서핑이 가능한 송정 바다

글 전미희 사진 장은주

바다를 간직한 향초

캔들 만들기 체험

부산 여행의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면 부산 바다 냄새를 담은 향초를 만들어보자.
기분 전환은 물론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는 캔들 만들기.



일상의 힐링, 캔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어 이후 집이 휴식 공간이자 일터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새 가구를 들이거나 구조를 바꾸는 것보다 더 쉽고 빠르게 실내 분위기를 환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좋은 향을 피우는 것. 집 안을 가득 메운 향기 덕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빛 하나로 금세 근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소소하게 불멍을 하는 것도 캔들이 주는 또 다른 재미.

캔들은 파라핀 왁스를 녹여 만드는 게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젤 왁스를 이용해 만든 초도 있는데, 젤리처럼 말캉거리는 재질인 데다 투명하기 때문에 색소를 넣어 예쁘게 꾸미는 것이 가능하다. 건강을 생각해 소이 왁스, 비즈 왁스 등 천연 재료를 이용하기도 한다.

캔들을 태울 때는 아무리 불씨가 작아도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인화 물질이 닿지 않도록 주변을 정리하고, 초를 켜둔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캔들을 태운 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반드시 끈다. 요즘에는 향초를 녹여 향만 피우는 캔들 위머도 출시되고 있다. 할로겐램프의 열로 향초를 녹이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적고 초를 오랫동안 태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추억을 떠올리는 향

후각은 대뇌에 직접적으로 전달돼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감각이다. 흔들리는 꽃잎에서 옛 연인의 향을 맡으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것도 그 때문. 여행지에서의 좋은 추억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면 향으로 간직하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부산에 위치한 '랜드마크 프로젝트'는 향초, 디퓨저 등을 만드는 핸드메이드 소품 공방으로, 부산의 특색이 담긴 다양한 소품을 선보이고 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소재를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데, 소주잔을 활용한 '부산 바다 캔들'이 대표적이다. 모래와 조개껍데기 등으로 꾸며 마치 소주잔 안에 부산 바다를 담은 것 같은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직접 블렌딩한 향료를 넣어 은은하고 개성 있는 향을 맡을 수 있다.



나만의 소주잔 캔들 만들기

캔들은 재료가 간단하고 만드는 방법도 쉬워 남녀노소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원데이 클래스를 통해 체험해본 후 직접 재료를 구입해 집에서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좋아하는 향이나 소품 등으로 꾸며 나만의 초를 만들어보자. 향초 케이스는 쓰지 않는 유리병이나 캔을 활용하면 된다. 유리병을 사용할 경우 촛농에 색소와 소품 등을 넣으면 좀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어린아이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지만, 촛농을 녹이는 과정에서 화상 입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한다.

우선 캔들을 만들 소주잔과 심지, 촛농, 색소, 향료, 그 밖에 캔들을 꾸밀 다양한 소재를 준비한다. 재료를 준비했다면 심지 스티커를 이용해 심지를 소주잔 바닥 중앙에 붙인다. 이때 심지를 중앙에 붙여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초가 녹는다. 그런 다음 모래, 조개껍데기 등 각종 소품을 원하는 만큼 넣는다. 중탕해 녹인 촛농에 원하는 향을 첨가하고 잔에 절반 정도 부은 다음 원하는 색의 색소를 촛농에 섞은 뒤 마저 붓는다. 이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일정한 속도로 부어야 한다. 촛농을 다 부은 뒤 마지막으로 심지를 원하는 길이만큼 자르면 완성. 2시간 정도 굳힌 다음 사용한다.

#소주잔캔들 #바다를담은캔들 제작 과정

- ① 심지 스티커를 이용해 심지를 소주잔 바닥 중앙에 붙인다.
- ② 모래와 조개껍데기 등 각종 소품을 적절히 배치한다.
- ③ 촛농을 녹인 후 향료를 섞고 잔에 붓는다.
- ④ 색소를 촛농에 섞은 뒤 마저 붓는다.
- ⑤ 심지를 원하는 길이만큼 자른다.
- ⑥ 2시간 정도 굳힌 다음 사용한다.



Mini Interview

“저희 공방은 부산으로 여행 온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세요. 좋아하는 향을 넣어 직접 캔들을 만들면서 여행할 때 느낀 감정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향기를 맡으며 추억을 떠올릴 수도 있어 특별한 기념품으로 손색없죠. 부산의 푸른 바다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면 캔들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 정성훈 랜드마크 프로젝트 대표

글 전미희 사진 장은주

수억 년 세월이 빛은 대자연 속으로

무더위 쫓는 전국 동굴 나들이

한여름 작열하는 태양을 피해 더위를 식힐 가장 완벽한 장소로 동굴은 어떨까. 태곳적부터 빛이라고는 한 번도 닿은 적 없을 길고 긴 동굴을 더듬어 걷다 보면 어느새 오싹하도록 시린 한기마저 느껴진다. 그곳에서 수억 년 대자연의 숨은 경이로움을 마주하면 인간사 부질없는 소소곡절이 깃털처럼 가벼워질지도 모른다.

5억 년의 시간이 창조한 지하 궁전 단양 고수동굴



단양군 고수리에 위치해 고수동굴이라 명명한 이곳은 전형적인 석회암 동굴이다. 5억 년 전 고생대 전기 해저에서 퇴적된 석회암이 200만 년 전 신생대 4기 이후 빙하기를 거치며 총연장 1,395m의 동굴을 품었다. 200만 년의 어둠을 견어낸 사람은 학교법인 유신학원 설립자인 故 박창원 이사장이다. 1976년 민간 차원에서 관광 동굴로 개발한 이래 43년간 약 2,300만 명이 다녀갔다.

3층 구조의 동굴 안에 들어서면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기기묘묘한 형상의 종유관과 종유석, 석순, 유석, 휴석, 동굴 진주, 동굴 산호, 석화 등을 관찰할 수 있다. 개방된 구간은 940m지만 마리아상, 만물상, 천당연못, 천지창조, 천년의 사랑, 사자바위, 인어바위, 에어리언바위 등 독특한 볼거리가 많아 세계 3대 미굴(美窟)인 미국 루레이 동굴과 비교된다. 충주호, 단양호, 양방산 등 인근 관광지와의 가까워 가족 나들이 장소로도 적합하다.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고수동굴길 8

폐탄광의 눈부신 부활
경기 광명동굴



1912년 일제가 금, 은, 동, 아연 등 광물을 캐내기 위해 개발한 시흥광산은 일제강점기 징용과 수탈의 현장이자 해방 후 근대화·산업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산업 유산이다. 1972년 홍수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로 폐광된 후 40여 년간 새우젓 저장 창고로 쓰이며 잠들어 있던 이곳을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해 광명동굴로 개명하고 관광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한때 근무하던 광부가 500명에 이르렀던 이곳의 역사적 의미를 살필 수 있는 근대역사관을 비롯해 동굴예술의전당, 동굴아쿠아월드, 황금의 방, 공포체험관, 동굴의 제왕, 와인동굴, 동굴식물원, VR체험관 등 역사적·문화적 체험거리가 다양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테마파크로 손색이 없다. 수도권에 위치해 접근성도 좋아 연간 100만 명 이상 찾는 명소로 떠올랐다.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폐탄광 재개발 성공 사례다.

주소 경기도 광명시 가학로85번길 142

국내 최대·최다 관광 동굴
삼척 환선굴·대금굴



삼척시 대이리 지역은 국내 최대의 석회암 동굴인 환선굴이 있는 곳이며, 가장 많은 동굴이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다. 1966년 대이동굴지대가 천연기념물 제178호로 지정될 당시에는 환선굴과 관음굴 등 9개의 동굴이 있었지만, 2002년 환선굴 옆에서 대금굴이 추가로 발견됐다. 그래서 환선굴과 대금굴의 주차장과 매표소는 공용이다. 매표소에서 조금 걸어 올라가 모노레일을 타면 동굴 입구에 다다를 수 있다.

총연장 6.2km의 환선굴에 들어서면 만물상, 미녀상, 대머리석순, 산호길, 사랑의 길 등 대자연이 오랜 시간 빛은 독특하고 신비로운 볼거리가 이어진다. 또 동굴 속에 설치된 출렁다리는 ‘지옥교’ 혹은 ‘참회의 다리’로 불릴 만큼 짜릿한 스릴을 선사한다. 개방 구간은 1.6km 정도라 한 시간이면 둘러볼 수 있다.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대금굴은 입장부터 관람까지 챙겨야 할 것이 많다. 인터넷 예약제로 운영되는 데다 모노레일로만 출입이 가능하고, 강수량이 많은 날에는 입장이 제한되므로 원활한 관람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관람을 위해 들인 정성만큼 볼거리는 풍부하다. 입구에서부터 크고 작은 폭포가 더위를 식혀 주고, 각양각색의 생성물을 감상하며 동굴 속 호수 위를 걷는 듯한 몽환적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개방 구간은 환선굴의 절반가량(0.8km)이지만, 소요 시간은 한 시간 정도로 비슷한 편이다.

주소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대이리 산177 일원

인공 동굴과 천연 동굴의 환상적 콜라보 정선 화암동굴



화암동굴은 1922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에 금을 캐던 천포광산을 개명한 곳이다. 그래서 인공 동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광산과 석회석 자연 동굴이 어우러진 유일무이한 동굴로 2019년 천연기념물 제557호로 지정됐다. 관람 길이는 총 1,803m이며 역사의 장, 금맥 따라 365, 동화의 나라, 금의 세계, 대자연의 신비 등 주제별로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 금광산인 상부 갱도에는 금광맥 발견부터 채취까지의 전 과정을 재현해놓았으며, 하부 갱도와 365개의 계단으로 연결해 각종 석회암 생성물을 관찰할 수 있다. 총면적 2,975㎡의 천연 동굴 광장 정면에서는 높이 8m, 둘레 5m의 대형 석주를 만나며, 동양 최대인 28m 높이의 거대한 황금색 유석 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화암동굴을 중심으로 카트 체험장, 금광촌, 향토박물관, 야영장 등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다 동굴 내부의 환상적인 영상 조명 덕분에 출사지로도 인기가 높아 연간 약 18만 명이 다녀간다.

주소 강원도 정선군 화암동굴길 12-1

제주도 지형의 특징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곳
제주 만장굴



화산작용과 용암으로 이루어진 섬, 제주의 지형적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곳이 바로 만장굴이다. 약 10만~3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인한 용암이 지하를 뚫고 해안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본다. 총길이 7.4km에 이르는 매우 큰 규모의 다층 구조 용암 화산으로, 원래는 제주어로 ‘아주 깊은 굴’이라는 뜻의 ‘만쟁이 거머리굴’이라 불렀다.

만장굴은 수십만 년 전에 생성되었음에도 1958년에야 발견되어 늦게 개발되었기 때문에 내부 형태와 지형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어 학술적·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으로 일반인에게는 1km 구간만 개방한다. 용암 종류, 용암 석순, 용암 유석, 용암 유선, 용암 선반, 용암 표석 등 다양한 용암 동굴 생성물을 관찰할 수 있고, 세계 최대 높이의 용암 석주(7.6m)가 유명하다. 다른 지역의 동굴과 달리 급경사가 적고 소요 시간도 40분 내외라 관람하기 용이하다.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만장굴길 182

글 이정훈 **사진 제공** (주)유신, 광명도시공사, 삼척시청,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영혼을 위로하는 작은 친구
나만의 '반려 악기' 찾기

항상 곁에 두고 연주할 수 있는 반려 악기를 갖고 싶은데 막상 악기를 배우려니 비용도 부담되고 금방 포기하게 되진 않을까 망설여진다. 취미로 좀 더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악기는 없을까?
크기는 작지만, 매력 있는 음색으로 잔잔한 힐링을 선사하는 이 악기들을 주목해보자.



청량한 울림의 엄지 피아노, 칼림바(Kalimba)

2021년 현재 가장 '핫한' 취미 악기를 꼽으라면 단연 칼림바다. 고대 아프리카의 민속악기에서 유래한 칼림바는 국내에 수입 판매되기 시작한 지 3~4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이후 '집콕용 힐링 악기'로 인기가 급부상했다. 연주법이 비교적 간단해 초보자가 입문하기 쉽고 유튜브 등을 통해 독학도 가능하다. 가격대도 저렴하고 손에 쏙 들어오는 작은 크기로 휴대도 쉬워 반려 악기로는 안성맞춤이다.

칼림바는 엄지손가락 두 개로 연주하는 악기로, 일명 '엄지 피아노'라 불린다. 공명상자에 붙은 금속이나 대나무 등이 가느다란 판을 튕겨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맑고 영롱해 단숨에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사운드홀의 형태에 따라 어쿠스틱·플레이트·할로우바디 칼림바로 나뉜다. 사운드홀이 양면에 있는 어쿠스틱 칼림바가 울림이 가장 풍부하며, 사운드홀이 없는 플레이트 칼림바는 음량이 작아 실내에서 연주하기 좋다. 금속판의 개수에 따라 5~21음의 칼림바가 있으며, 입문자라면 활용도가 좋은 17음의 C키 칼림바를 추천한다. 또한 칼림바는 바디 소재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른 소리를 내므로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하와이를 연주하다, 우쿨렐레(Ukulele)

평화로운 하와이 해변 풍경과 경쾌한 훌라춤을 떠오르게 하는 귀여운 악기 우쿨렐레. 하와이어로 ‘뛰어오르는 벼룩’이란 뜻의 이름이다. 연주할 때 손가락이 마치 벼룩이 뛰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기타의 1/4 크기에 4줄의 현을 가진 우쿨렐레는 6줄인 기타에 비해 훨씬 연주하기 쉬우며, 가볍고 경쾌한 음색을 갖고 있다. 가격대도 저렴한 편이라 국내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취미 악기로 사랑받고 있다.

우쿨렐레는 몸통의 모양에 따라 파인애플형, 벨형, 컷어웨이형, 스탠더드형, 바이타형으로 분류되며 각각 음색에도 차이가 있다. 음역에 따라서는 소프라노, 콘서트, 테너, 바리톤 등으로 나뉜다. 바디 크기가 작고 넥이 짧을수록 가볍고 통통 튀는 음색을 가지며, 바디가 크고 넥이 길수록 차분한 소리를 낸다. 손이 작은 성인이나 어린이의 경우 바디가 작은 소프라노형이 적합하며, 가장 대중적인 타입은 콘서트형이다.



노래하는 작은 거위, 오카리나(Ocarina)

오카리나는 이탈리아 부드리오 지방 방언으로 ‘작고 귀여운 거위’라는 뜻을 가진 손바닥 크기의 취주악기다. 1950년대 이탈리아에서 아이들이 갖고 놀던 흙피리에서 영감을 얻어 처음 개발된 것으로 전해지며, 국내에는 1980년대 후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했다. 튀어나온 취구로 바람을 불어넣어 8~12개의 구멍으로 음을 조절해 연주하며, 맑고 고운 음색이 특징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배우기 쉬워 최근에는 어린이를 위한 수업도 많으며 시니어들의 취미 악기로도 인기가 있다. 리코더를 연주해본 적 있다면 더욱 쉽게 오카리나 연주법을 익힐 수 있다.

오카리나는 원래는 흙을 빚어 만든 악기지만, 최근에는 나무, 플라스틱, 유리, 금속, 뼈, 세라믹 등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고 있다. 취구(관)의 수나 음역, 형태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알토 C음역대의 T형(이탈리아식) 1관 오카리나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작은 오리 형태의 오카리나가 바로 T형 오카리나로, 대개 12~13음 정도의 가장 넓은 음역을 갖는다. 오카리나를 처음 연주하는 입문자라면 플라스틱 소재의 저렴한 악기로 시작해 점차 실력을 쌓은 후 고가의 연주용을 구입하기를 권장한다.



신비로운 미니 하프, 리라(Lyre)

칼림바, 우쿨렐레, 오카리나보다 더욱 희소성 있는 나만의 악기를 연주하고 싶다면 청명한 음색의 고대 악기, 리라에 주목해보자. 천상의 소리를 낸다는 하프와 흡사하지만, 후대가 가능한 양증맞은 크기 덕에 하프보다 한결 쉽게 다가갈 수 있다.

기원전 3000년경부터 연주됐다고 알려진 리라는 서양 문화권에서 음악과 문학을 상징하는 도상이다. 또한, 고대 그리스를 비롯해 중동, 서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문화권에서 종교적이고 신성한 악기로 여겨져 왔다. 그리스 신화에서 태양, 음악, 시 등을 관장하는 신 아폴론은 머리에 월계관을 쓰고 손에 리라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신화 속 음유시인 오르페우스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리라는 거문고자리라는 별자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현재 통용되는 리라는 크게 클래식 버전과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나뉜다. 프로페셔널 리라가 더 풍성하고 깊은 소리를 내지만 입문자라면 가볍고 가격도 저렴한 클래식 리라로 시작하기를 권한다. 클래식 리라는 악기 본체에 음계가 각인되어 있어 초보 연주자가 연습하기 용이하며 소리를 내기도 더 쉽다.



경쾌한 리듬 상자, 카혼(cajon)

박자와 리듬으로 흥을 돋우는 타악기에 흥미가 있다면 남미에서 온 카혼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주로 어쿠스틱 음악의 소규모 공연에서 드럼 대신 연주되는 상자 모양의 악기가 바로 카혼이다. 16~19세기 남아메리카에 노예로 끌려간 아프리카인들이 주변에 흔히 널린 나무상자를 악기 삼아 두드리던 것이 카혼의 기원이라 전해진다. 당시 식민지 내에는 아프리카 음악이 금지돼 있었으나 카혼은 의자로 쉽게 위장할 수 있어 스페인의 감시와 억압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카혼은 악기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손과 손가락, 또는 도구로 악기의 앞면과 뒷면을 두드려 연주한다. 한쪽 면의 둥그란 구멍이 기타의 사운드홀과 같은 역할을 한다. 카혼의 형태는 단순하지만 두드리는 지점과 연주 방법에 따라 제법 다양한 소리를 만들 수 있다. 손바닥 전체로 앞판 중앙 쪽을 치면 낮고 깊은 베이스 톤을 내고, 손가락으로 앞판 윗부분을 치면 경쾌하고 날카로운 슬랩 톤의 소리가 난다. 상자 안에 장착된 스텐어(울림줄)의 울림에 따라서도 음색이 달라진다. 카혼은 꼭 정해진 주법을 따르기보다 리듬에 맞춰, 느낌에 따라 연주할 수 있어 더욱 자유로운 악기라 할 수 있다.

일본 지역사회를 잇는 아톰 통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지역에 뿌리를 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보호하면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해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반면 부정 사용, 공동체적 가치 상실, 지자체의 재정 부담, 공급자 중심의 시각 등 지역화폐에 대한 우려와 지적의 목소리도 크다. 언제든 정부 지원이 끊기면 다시 예전처럼 골칫거리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화폐가 지방정부의 효과적 정책 도구로 충분히 기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고민이 더 필요한 시점이다. 해외에서 가장 활성화된 지역화폐 사례 중 하나인 일본의 '아톰 통화'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보려 한다.



(출처) 아톰 통화 공식 홈페이지

지역화폐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아톰 통화

아톰 통화(Atom Community Currency)는 우리에게 익숙한 만화 <아톰>의 발상지이자 주 무대인 도쿄 와세다-다카다노바바 지역에서 2004년에 만든 지역화폐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일본에 상당히 많은 지역화폐가 지역사회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되며 주목받았지만, 오늘날까지 15년 넘게 장기간 넘치는 사랑을 받는 지역화폐는 아톰 통화가 유일하다. 현재는 전국 각 지역에서 유통되는 일본의 대표 지역화폐로 성장했다.

지역 주민들은 어느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아톰 통화를 사용해 음식을 사 먹고 쇼핑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지역화폐와는 다른 아톰 통화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 지역사회를 위해 공헌하거나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아톰 통화가 지급된다는 점이다. 아톰 통화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와 연계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이 비영리 조직, 자원봉사 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지역의 아톰 통화 가맹점에서 수행하는 젓가락 지참, 빈병 회수, 옷걸이 재활용, 에코백 사용 등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다. 즉 돈을 주고 살 수 없으며, 의미 있는 일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에 '감사의 돈'으로 불린다.

이 때문에 아톰 통화는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동기 유발 촉매제가 되기도 한다. 실제 아톰 통화는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내에서 봉사 활동이 활발해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참여한 가맹점은 자신의 매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여 활동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들만의 가치와 차별성을 높이기 위한 동기를 부여받곤 한다.

아톰 통화의 화폐 단위는 마력(HP)이며, 10·50·100·500마력 단위로 발행된다. 1마력은 실제로 1엔의 가치를 지닌다. 아쉽게도 법정화폐로 교환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교환이 안 된다는 이유로 아톰 통화는 지역사회 공헌의 징표가 되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기 아이템이 되었다. 게다가 아톰 통화의 디자인은 해마다 계속 바뀌는데, 디자인이 독특하고 화려해 기념품으로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도 꽤 많다.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에서 시작된 화폐

아톰 통화는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와세다 대학교의 히라야마 이쿠오 자원봉사센터, 데즈카 프로덕션(<아톰> 제작사) 그리고 지역 상가의 협력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데즈카 프로덕션에 있어 해당 지역사회는 지금의 <아톰>이 있게 해준 소중한 동네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대한 고마움에 보답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아톰 통화를 만들게 됐다. 실제 지역 주민들은 데즈카 프로덕션의 작품을 마을 벽화로 활용할 만큼 깊은 애정을 지녔다. 그 당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지역 공동체 간 네트워크가 느슨해진 상황을 고려하면 아톰 통화는 더할 나위 없는 돌파구였고 최고의 선물이었다.

아톰 통화는 지역 주민 누구나 장벽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지역사회에 유연한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소비와 지역 상인의 소득 개선보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가 더 중요했다. 그리고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 환경친화적 사회, 지역 커뮤니티가 활발한 사회, 국제 협력에 적극적인 사회, 교육에 진지하게 힘쓰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주요 이념으로 삼았다. 이러한 이념에 기반을 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수행해야 아톰 통화를 받을 수 있기에 지역 주민들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동참하고 환경적·교육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가담하게 된다.



지역사회가 움직이려면 공동체 가치 창출이 우선

나름대로 오랜 역사를 지닌 전 세계의 수많은 지역화폐가 그동안 어떤 성과를 냈는지 충분히 경험했다. 하지만 대부분 반쪽짜리 성공이었다. 앞으로도 방식은 바뀌더라도 지역화폐는 계속 발행될 것이다. 그러나 재정 정책 수단을 넘어 지역사회를 진정 빛낼 수 있는 공동체 가치 창출이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자.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감으로 지역화폐를 써야 한다는 기존 사고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키지 않아도 마음이 절로 움직이는 지역 주민의 시선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 손을 거쳐간 많은 지역화폐에 ‘화폐’는 있는데 ‘지역’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앞서 살펴본 아톰 통화의 성공 요인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발전과 공생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가치가 지역화폐를 통해 창출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미래의 지역화폐는 어쩌면 지역 공동체 안에서 공유하는 신뢰, 애정, 고마움의 새로운 표현이 될지도 모르겠다.

글 오현규(중부대학교 교수)

식중독 걱정 없는 건강한 여름나기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기 때문에 음식물 섭취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올여름을 탈 없이 보낼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법과 증상 완화법을 숙지해두자.



식중독이란 식품이나 물의 섭취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식중독의 원인은 크게 미생물과 화학물질로 구분되며,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은 세균성 식중독과 바이러스성 식중독으로 분류된다. 이 중 세균성 식중독이 가장 흔한 형태의 식중독이다. 섭취한 음식물에 독소나 세균이 섞여 들어오면 우리 몸은 구토나 설사를 통해 이를 신속히 체외로 배출시키고자 한다. 세균이 장벽에 붙거나 뚫고 들어가는 경우 전신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면 식중독을 의심해볼 수 있다. 식중독은 대개 하루에서 이틀이면 증상이 완화되지만, 잦은 설사 증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 38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올바른 습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3대 수칙으로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를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위생 관념이 높아지며 철저한 손 씻기가 생활화되긴 했지만, 여름철에는 다양한 경로로 식품의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음식물의 보관과 섭취에 두루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식중독균은 4~60°C의 온도에서 증식하며 35~36°C 내외에서 가장 번식 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뜨거운 음식은 60°C 이상으로, 찬 음식은 4°C 이하로 보관하면 세균의 증식을 방지할 수 있다.

조리하지 않고 먹는 과일이나 채소류는 반드시 깨끗이 세척한 후 섭취해야 한다. 조리한 식품은 가급적 실온에 두지 않도록 하고, 한번 조리된 식품은 반드시 재가열 후 먹어야 한다. 교차 오염 방지를 위해 날음식과 조리된 식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넣어 보관하고, 칼과 도마도 구분해서 사용한다. 육류와 어패류는 미생물 증식에 의한 부패와 변질의 위험이 특히 높으므로 취급에 더욱 유의한다. 식품을 개봉한 후에는 즉시 밀폐해 냉장 및 냉동보관하고, 유통기한이 남아있더라도 개봉 후 1주일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다.

물론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이라 해도 맹신은 금물이다. 먹다 남은 찌개나 반찬은 섭취 과정에서 이미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기에 반드시 재가열 후 냉장 보관해야 하며, 냉장 보관된 식품이라도 섭취 전 재가열하는 것이 안전하다. 냉장·냉동된 식품을 상온에 보관하면 식중독균이 급속히 증식하므로 섭취 직전까지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냉장고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청소해 청결을 유지하고, 냉장고 전체 부피의 70% 정도만 식품을 채워 냉기가 원활히 순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식중독 증상 완화를 위한 조치

식중독에 걸렸을 때는 잦은 구토와 설사로 탈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분과 전해질을 충분히 섭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빠른 수분 흡수를 위해 물에 약간의 설탕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거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일부 이온 음료 제품에는 전해질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너무 많은 당분을 포함하고 있어 탈수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에서는 탈수 예방을 위한 가정 내 응급처치 방법으로 끓인 물 1L에 설탕 4스푼, 소금 1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탈수가 너무 심하거나 구토로 인해 물을 마실 수 없는 경우라면 병원에 방문해 수액 공급을 받아야 한다.

식중독에 걸렸을 때 설사를 멈추기 위해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사제는 설사를 멎게 하는 약이 아니라 장운동을 멈추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독성이 강한 균들이 배출되지 않고 장 내에 머물면서 증식해 오히려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 심한 경우 발열이나 혈변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식중독으로 설사를 할 때 무조건 금식을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해주는 것이 좋다. 금식할 경우 장 상피세포의 재생이 느려져 오히려 설사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피해야 하며, 장과 위벽을 자극할 수 있는 생과일, 커피, 콜라, 주스 등은 자제해야 한다. 설사가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유제품에 함유된 유당 흡수 장애가 올 수 있으므로 유제품 섭취를 일시적으로 줄여보는 것이 좋다.

정리 전하영 **참고 자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민건강지식센터, 국가건강정보포털 외

소중한 목돈이 한 아름 기쁨으로

행정공제회 한아름목돈예탁

안정적인 예금 상품을 찾고 싶어도 은행 이율이 아쉽기만 한 초저금리 시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현직·퇴직 공무원의 여유 자금을 안전하게 증식해주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한아름목돈예탁' 상품을 소개한다.



최대 연 2.10%의 회원 전용 예금 상품

2021년에도 기준 금리가 연 0.50% 수준으로 동결되며 제로 금리 시대 장기화를 예고했다. 일반 예·적금 상품만 이용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지난해에는 그야말로 주식 열풍이 불었고, 올해는 더 위험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까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가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이 노후 자금 등 여유 자금을 예치해둘 조금 더 안정적인 재테크 상품은 없을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안전하게 목돈을 증식할 적당한 상품을 찾고 있다면 행정공제회의 한아름목돈예탁을 주목하자.

한아름목돈예탁은 행정공제회의 현직 또는 퇴직 회원이 여유 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예금 상품이다. 최대 연 2.10%(만기지급식, 1년제 이상), 세전, 변동 금리, 2021년 3월 1일 기준) 금리로 운용되며, 가입 금액은 100만 원부터 5억 원까지 100만 원 단위로 예치가 가능하다. 급여 종류는 지급 방법에 따라 만기지급식, 부가금지급식(매년/매월), 원리금지급식으로 나뉜다. 가입 후에는 급여 종류 및 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만기 전 중도 해지 시에는 중도 해지 부가금 지급률에 따라 이자를 정산해 지급한다.

세 가지 급여 종류와 부가율

한아름목돈예탁 만기지급식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면 만기일에 원금과 부가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 기간은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중 선택할 수 있다. 부가금지급식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면 가입 기간 중 매월 또는 매년 이자 지급 후 만기 시 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가입 기간 분류는 만기지급식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원리금지급식은 목돈을 일시에 납입하면 가입 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 합계액을 균등하게 지급해 만기 시 원금이 소멸되는 방식이다. 가입 기간은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중 선택 가능하다. 만기일은 모두 매월 5일 또는 20일로 지정한다.

한아름목돈예탁은 변동 금리로 운용되며, 이자율은 기준 금리와 가산 금리를 더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2021년 3월 1일 기준으로 만기지급식은 1년제 이상의 경우 연 2.10%, 6개월 단기상품의 경우 연 1.60%의 금리를 적용한다. 부가금(매년)지급식 역시 1년 이상 가입 시 연 2.10%, 6개월 가입 시 연 1.60%를 적용한다. 부가금(매월)지급식과 원리금지급식의 부가율은 1년제 이상일 때 연 2.08%, 6개월 가입 시 연 1.59%다.



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

한아름목돈예탁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공제회 회원 가입이 필수다. 퇴직한 회원이 본 상품에 가입할 경우 행정공제회 특별 회원 자격이 부여된다. 특별 회원이 되면 행정공제회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별 회원 요양급여금이 지급되며, 행정공제회 직영 시설인 호텔인터시티와 중원골프클럽을 할인된 가격에 이용 가능하다. 회원 전용 콘도 역시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POBA누리 복지 사이트 이용은 물론 기타 제휴 할인 및 이벤트에도 참여 가능하다.

가입 방법은 인터넷 신청과 서면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행정공제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 한아름목돈예탁을 선택해 가입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가입 신청 완료 시 SMS로 회원 고유의 가상계좌를 안내하며, 접수 사항이 확인되면 안내된 회원 고유의 가상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서면 신청의 경우 먼저 홈페이지에서 가입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콜센터(1577-7590)에 연락해 본인 확인 후 가상팩스 번호를 발급받고, 작성한 구비 서류와 함께 발급받은 가상팩스 번호로 송부 또는 우편(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140)으로 송부한다. 가입 신청서 외 구비할 서류는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1통과 통장 사본 1통이다. 서면 신청 역시 접수 사실이 확인되면 SMS를 통해 회원 고유의 가상계좌를 부여한다. 입금확인이 완료되면 당일 가입 확정문자가 발송되며, 가입 증서 신청 방법에 따라 인터넷 혹은 우편을 통해 예탁증서를 받아 볼 수 있다.

한아름목돈예탁 상품은 간편한 신청 방법과 시중은행 대비 다소 높은 금리로 행정공제회의 매력상품으로 자리매김해가는 중이다

정리 전하영

당신의 차는 안녕하십니까?
고온다습 여름철, 똑똑한 차량 관리법

짙통 같은 더위와 퍼붓는 장맛비에 힘들고 지치기는 사람이나 자동차나 마찬가지다.
여름철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평소보다 더 세심한 차량 관리가 필요하다.



내 차 건강, 점검이 곧 예방접종

뜨겁게 타오르는 여름 날씨에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부분은 엔진을 식혀주는 냉각수다. 냉각수가 부족할 경우 엔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냉각수를 점검할 때는 반드시 차의 시동을 끄고 엔진이 완전히 식은 후 확인해야 안전하다. 만약 급히 냉각수를 보충해야 할 상황이라면 수돗물을 넣어도 되지만, 지하수나 등 미네랄 함량이 높은 물은 내부 부식을 유발하기 때문에 피한다. 냉각수와 같이 엔진 내부의 열을 빼앗아 냉각하는 역할을 하는 엔진오일 역시 미리 점검해줘야 한다. 특히 엔진오일은 온도에 따라 점도가 변하는 성질이 있으므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6월에 교체해두는 것이 가장 좋다.

타이어도 엔진 만큼이나 온도에 민감한 부품 중 하나다. 특히 여름에는 뜨거운 노면 온도 때문에 타이어가 과열돼 갈라지거나 파손될 수 있어 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이 좋다. 흔히 여름철에는 열 때문에 타이어 내부 공기가 팽창하는 것을 고려해 공기압을 10% 정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기압이 낮을 경우 마찰 면적이 더 커져 오히려 더 많은 열이 발생한다. 따라서 타이어 공기압은 권장 공기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고, 휴가 등 장거리 운행 시나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더 주입해야 한다.

여름철 세균 번식의 온상이 되기 쉬운 에어컨도 올바른 관리가 필요하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2~3분 전에 미리 에어컨을 끄고 공기만 유입시키면 수분이 증발해 세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다. 에어컨 필터는 1년에 1~2번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여름철 잦은 폭우를 대비해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워셔액이 충분한지 점검해야 한다. 비가 많이 오면 평소보다 가시거리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운행 전 등화장치의 작동 여부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휴가철 장거리 운행 후에는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브레이크에서 '끼익' 소리가 나거나 밟았을 때 평소보다 밀리는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한 습관

평소 올바른 운전 습관과 주차 습관만으로도 나와 가족의 안전, 나아가 이웃의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다. 특히 여름철에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습관에는 무엇이 있을까.

더운 날씨 때문에 장시간 에어컨을 가동한 채 차를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 배터리의 온도가 높아지는데 이로 인해 배터리의 수명이 단축되거나 고장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불편하더라도 1시간에 5분 정도는 잠시 에어컨 사용을 멈추는 것이 좋다. 또한, 정차한 후에는 에어컨을 비롯해 헤드라이트나 라디오 등의 전기장치를 먼저 끈 후 시동을 꺼야 한다.

한낮의 야외 기온이 30°C 이상일 때 차량의 실내온도는 최대 90°C까지 오를 수 있다. 이때 차내에 가스라이터나 휴대폰 배터리 등을 둔 채 차를 장시간 실외에 방치할 경우 폭발 또는 손상의 위험이 있다.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등의 전자기기도 과열로 오작동하거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름철 주차는 가급적 띄약별을 피해 실내에 하는 것이 좋다. 부득이하게 장시간 야외주차할 경우 창문을 살짝 열어 두거나 햇빛 차단막 등을 이용하면 열기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내비게이션은 전용 커버나 수건 등으로 덮어줘야 한다.

빗길 운행 시에는 노면이 미끄러워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제한속도보다 20% 정도 감속하고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채 운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비가 막 내리기 시작할 때 노면이 가장 미끄럽기 때문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수막현상이 발생했을 때는 브레이크나 액셀레이터를 밟지 않고 기어와 핸들 조작도 멈춘 상태로 핸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양손으로 잡아줘야 한다.

장마철 비가 고인 물웅덩이를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에어컨을 꺼서 팬 모터의 손상을 방지하고, 변속기어를 저단으로 둔 상태에서 10~20km의 속도로 단번에 건너야 한다. 과속하거나 차를 세우게 되면 머플러로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질 수 있으니 주의한다. 만약 시동이 꺼졌다면 시동을 다시 걸지 말고 견인차를 부르도록 하자. 물이 공기 흡입구를 통해 엔진 내부로 유입돼 엔진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미 빠르게 변화하는 새로운 세상 안에 살고 있다.
변화하는 세계, 진화하는 예술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가 보자.



“장동헌 사업 이사 추천 도서”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

행정공제회 장동헌 사업 이사는 변화하는 시대의 주요 트렌드를 읽고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힐 수 있는 책으로 <메타버스: 디지털 지구, 뜨는 것들의 세상>을 추천한다. 메타버스(Metaverse)란 ‘초월’을 뜻하는 ‘Meta’와 ‘세상’을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다. 우리는 이미 일상에서 온라인 게임, SNS, 플랫폼 서비스 등 수많은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있다. 인류의 신대륙이 될 메타버스-디지털 지구는 앞으로 더욱 확장되어 끝없이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어갈 것이다. 메타버스의 개념과 사례들을 이해했다면 같은 저자의 신작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디지털 지구, 경제와 투자의 기준이 바뀐다>를 함께 읽어보는 것도 좋다. 메타버스 시대를 거대한 기회로 만들 투자전략과 정보들이 담겼다.

김상균 | 플랜비디자인 | 2020.12.18.



**끝없이 변화하고 반응하는 교감의 예술
전시 <teamLab: LIFE>**

사각 프레임 안의 정적인 작품만이 예술 작품으로 인식되던 시대는 지났다.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전시 <teamLab: LIFE>는 작품 안에 들어간 관람객의 손길과 움직임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영상이 만들어지는 인터랙티브 전시다. 관람객이 발 딛고 선 공간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 된다. 공간을 가득 채운 경이로운 빛과 색의 향연을 통해 무수한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교차하는 세계를 표현했다. 아트 컬렉티브 팀랩(teamLab)은 다양한 국적과 분야의 아티스트,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CG 애니메이터 등으로 구성된 학제적 그룹이다. 인간과 자연, 그리고 세계와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참신한 작품들을 선보여오고 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 2020.9.25.~2021.8.22.



**새로운 시대의 '우리 음악'
<2021 여우락 페스티벌>**

장르의 경계를 넘어, 규칙 없이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하는 아티스트들이 '우리 음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우리 음악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줄 <2021 여우락 페스티벌>이다. 7월 한 달 동안 저마다의 개성을 지닌 13개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두 개의 눈>은 판소리 '심청가'에 키네틱 LED와 미디어아트를 결합했다. <고고고>는 3명의 젊은 거문고 연주자가 3가지 개성의 독특하고 자유로운 연주로 거문고의 한계를 확장한다. <공TAPE_Antinode>는 얼핏 접점이 없어 보이는 월드뮤직 그룹 공명과 일렉트로닉 록 밴드 이디오테잎이 만나 혁신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국립극장 달오름, 하늘, 별오름 | 2021.7.2.~7.24.



미래 꿈나무들의 상상력 채워줄
<2021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

미래의 세상을 이끌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감수성과 창의력을 키워줄 세 편의 작품이 올여름 예술의전당 무대에 차례로 오른다. 오페라하우스 대표 여름 기획공연 시리즈인 <2021 예술의전당 어린이 가족 페스티벌>이다. 올해는 2020년 서울 어린이 연극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참여형 연극 <우산도둑>, 성인 관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인형극 <하얀산>, 2018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어린이 공연 베스트 3’에 꼽힌 음악극 <리틀 뮤지션>이 준비됐다. 어린이와 청소년, 어른 모두 각자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며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 2021.7.15.~8.22.

급변하는 환경 속 우량 투자 건을 선별하라

국내부동산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국내부동산팀은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다양한 변수에 철저히 대비하며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석진수 차장, 광정훈 과장, 박상현 사원, 김상협 대리, 안창진 팀장, 소성일 차장, 하상천 대리

효율적 투자 관리로 자산 규모를 늘려가다

행정공제회 부동산·인프라본부에 속한 국내부동산팀은 국내 부동산 자산에 대한 투자와 관리 업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다. 오피스·물류·리테일·호텔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물 부동산 개발사업 등 여러 대출 투자 또한 진행 중이다. 국내부동산팀의 운용 자산은 2021년 5월 17일 기준 총 2조 105억 원 규모이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부동산팀의 주 업무 중 첫 번째는 신규 투자다. 투자 제안 메일 및 미팅 등을 통해 여러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로부터 신규 접수를 하고, 팀 내 회의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이후 행정공제회 투자심의위원회 프로세스에 따라 투자를 진행한다. 두 번째는 투자사업 관리 업무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담당자가 진행 상황 및 자금 수지, 기타 요청 자료 작성 등을 진행하며 주기적으로 운용 현황을 점검한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량 투자 건을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 특성상 장기 투자를 해야 하므로 발생 가능한 변수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금융 조건 등을 협의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공제회의 투자 가이드라인과 부합하는 투자 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급변하는 투자 환경과 경제 상황에 따른 새로운 투자 섹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국내부동산팀은 이를 위해 수시로 외부 교육과 세미나 등에 참여하며 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악조건 속에 거둔 의미 있는 성과

국내부동산팀은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각 운용 담당자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주기적인 현장 실사를 통해 자산을 점검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호텔이나 리테일 자산에 대한 실사가 제한돼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코로나19 영향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해외 투자에 제약이 생기자 이는 곧 국내 투자의 경쟁 심화로 이어졌고,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이 같은 상황에 행정공제회 국내부동산팀은 투자 다변화를 위한 섹터별 블라인드 펀드(오피스, 레지덴셜, 공모 리츠 등) 설정 및 우량 실물 자산 투자를 통해 대응했다. 또 기존 투자 건 중 성과가 좋은 건에 대한 Re-up 방식의 투자로 검증된 투자 파트너들과 협업해오고 있다.

국내부동산팀은 이 같은 대응 덕분에 어려운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태은물류센터 투자 건은 2015년 200억 원을 투자해 매각 차익 80억 원을 포함, 총수익 173억 원을 수취했다. 최종 실현 수익률은 16.65%였다. 또 여의도에 위치한 KB금융타워 투자 건은 2014년에 400억 원을 투자해 매각 차익 175억 원을 포함, 총수익 340억 원을 거뒀으며, 최종 실현 수익률은 IRR 12.73%였다.

2021년 현재는 자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가 가능한 대출형 블라인드 펀드를 검토 중이다. 다양한 전략으로 대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요구 수익률에 부합하는 투자 건에 선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 종식 상황에 맞춰 투자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전략이다. 단기적으로는 경기 변동에 영향이 적은 오피스, 물류, 주거 섹터의 투자를 확대하되 매출 타격이 큰 호텔과 리테일 비중을 축소할 예정이다. 시장 변동성을 감안한 투자 조건을 강화하고, 취약 섹터 자산에 대한 효율적 탈출 방안을 모색하며, 잔여 자산에 대한 주기적 점검으로 가치를 방어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달성해나갈 것이다.



Mini interview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투자 제약으로 국내 부동산 자산 가격이 매우 고평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1년 하반기에는 안정적 자산 위주의 선별적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투자한 우량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별 적정 타이밍을 포착해 매각 차익을 극대화할 것이며, 신규 투자는 이커머스 시장 활성화에 따른 물류 자산 투자 비중 확대와 다양한 전략의 대출 펀드를 조성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두루 갖춘 투자를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여전히 시장 상황이 어렵지만, 국내부동산팀은 행정공제회에서 추구하는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 국내부동산팀 **안창진** 팀장

글 전하영

더 단단한 미래를 만들 선택

탁월한 입지와 편의성 높은 공간 활용으로 향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투자 자산 두 건을 소개한다.



동여의도 증권가의 랜드마크 자산

오투타워

유동 인구가 많은 여의도역 전면 2개 대로변 교차점에 위치한 오투타워는 탁월한 가시성과 인지성으로 동여의도 증권가의 랜드마크 자산으로 통한다. 여의도공원이나 IFC몰 등 여의도역 주변 주요 방문지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통과해야 하기에 리테일 개발에 매우 유리한 입지를 갖추었다. 지하철역과 여의도환승센터 등이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탁월하며, 올림픽대로 · 강변북로 · 마포대교 등 광역적 차량 접근성도 우수하다. 그 뿐 아니라 여의도 권역은 YBD 광역 교통 인프라 확충이 대거 예정되어 있어 향후 10년의 펀드 운영 기간 동안 가치 상승과 위상 강화가 예상된다.

오투타워는 1998년 5월 준공한 건물로, 2019년 211억 원의 대규모 CAPEX 투자를 통해 전방위적 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오피스 공용부의 환경뿐 아니라 1,000m²(약 310평)를 증축하고 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건물 성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해 2021년 LEED Gold 인증을 획득했다. 현재 오투타워는 지상 23층, 지하 7층 규모에 780m²(236평)의 넓은 전용면적과 2.6m의 높은 천장고를 갖췄으며, 통유리 외관으로 우수한 채광 및 개방감을 확보했다. 화장실과 승강기 등 내부 공용 공간은 최고급 소재와 인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해 고급스럽게 연출했다. 1층 외부의 공개 공지와 4층 테라스에는 정원을 조성하고 휴게 공간을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본 자산은 복수 임차인(multi tenant)으로 구성되어 단일 임차인(single tenant) 자산에 비해 일시에 대량 공실이 발생할 리스크가 적으며, 임대 시장 개선 시 임대료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오피스 임대율 및 계약 갱신율도 우수하며, 특히 주요 임차인인 위워크(Wework)는 2033년까지 장기 임대차계약이 체결돼 있고, 임대면적의 56%를 서울핀테크랩이 전차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미국 선벨트 지대의 멀티패밀리 자산

캐롤라인(Caroline)

행정공제회는 최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위치한 멀티패밀리 자산인 캐롤라인(Caroline)을 매입했다. 2018년에 준공한 임대주택으로 각각 6층, 7층 규모의 건물 2개 동, 총 237세대로 이루어졌다. 피트니스센터, 스파, 야외 라운지, 수영장 등 입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층에는 다양한 리테일 숍이 들어섰다. 또 337대의 주차 공간을 갖춰 세대당 1.4대 주차가 가능하다.

본 자산이 위치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선벨트(Sunbelt)에 속하는 지역이다. 북위 37도 이남, '태양이 비치는 시대'란 뜻을 가진 선벨트는 최근 뉴욕, 보스턴, 캘리포니아 등 기존 핵심 권역의 높은 세금과 주거비용을 피해 전입하는 인구가 늘고 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2010~2019년 인구가 20.7% 증가했고, 이는 같은 기간 미국 평균 증가율 대비 6.1% 상회하는 수치다.

본 자산 주변 2km 반경에는 3개 대학이 위치하며, 찰스턴 지역 의료산업의 60% 이상이 집중돼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찰스턴시에서 약 25만1,240m²(7만6,000평) 규모의 오피스·주거·리테일 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어서 일자리 4,28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임대 임대 수요를 촉진해 임대료와 임대율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자산에 대한 투자 전략은 Core-Plus로, 자산 매입 후 약간의 CAPEX를 진행해 임대율과 임대료를 높인 후 배당을 안정적으로 수취하는 전략이다. 행정공제회는 향후 임차인에게 공사 지원금을 제공해 공실률을 줄이고, 보수 공사를 통해 임대료를 높여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취할 예정이다.



정리 전하영

2021년 회원 가족여행 지원 이벤트 시행

행정공제회가 2021년 회원 복지 지원 서비스의 일환으로 '회원 가족 여행 지원 프로그램' 과 '제주 10일 살아보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회원 가족여행 지원 프로그램(6.1~6.11)



회원 가족 여행 지원은 코로나19로 지쳐있는 회원 및 회원 가족에게 개별 자유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셀프 힐링'을 추구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새롭게 도입한 비대면 복지 이벤트다. 행정공제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일부터 11일간 이벤트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1,000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회원은 POBA누리 내 '회원 가족 여행 지원 프로그램' 이벤트관에 접속해 숙박시설 30곳 중 1곳을 선택하면 결제 시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 10일 살아보기



제주 10일 살아보기 프로젝트 또한 회원들에게 휴양 지역에서의 재충전 및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행정공제회의 야심찬 신규 프로젝트다.

공제회 회원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최종 선정된 81명에게는 10일간의 숙박비용이 무상 지원된다. 제공되는 숙박시설은 POBA누리 내 제휴숙박시설인 켄싱턴리조트 제주 한림점 35평형과 켄싱턴리조트 제주 서귀포점 26평형 객실 중 선택할 수 있다.

7월 5일(월)부터 30일(금)까지 한 달간 신청 접수하여 오는 8월 4일(수)에 최종 당첨자를 발표 및 개별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시범 운영 후 회원 호응 및 의견을 통해 운영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POBA누리 참조)

생활안정자금 대여이자율 한시적 인하 안내



행정공제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을 위하여 '생활안정자금(자기담보, 보증보험담보) 대여'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시행 기간 : 2021년 6월 1일 ~2021년 8월 31일, 3개월
- 대상 : 기 대여 회원, 시행기간 중 신규 대여 회원
- 대여이자율 : 연 3.85% → 연 3.65% (△0.2%p)
*공제금 대여 규정상 최저 기준 적용
- 해당 대여 상품은 대여이자율 한시적 인하 기간 종료 후 종전 이자율(연 3.85%)로 자동 조정

지난 4월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임양혁 운영위원이 회원복지 일환으로 대여이자율 인하 검토를 제안하였고, 공제회에서 실행 가능성과 회원복지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임양혁 운영위원은 “회원을 위한 아이디어를 냈는데, 공제회가 이를 신속하게 시행해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회원을 위해 운영위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밖에 인사와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1577-7590, 평일 9시~18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백신 접종 관련 복지 지원



행정공제회는 회원복지 차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회원들의 백신 조기 접종을 독려하고, 동시에 부작용에 대한 회원들의 불안감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진단 확정된 경우 지원금 지급 기준에 해당되며, 지급 금액은 1인 50만 원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이다.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 내 접종자에 한해 지급한다.

지원금 청구는 포바누리 사이트를 통해 이뤄진다. 포바누리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지원금을 신청하고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등 서류를 첨부하면 복지홍보팀의 심사와 내부결재를 거쳐 지원금이 지급된다.

행정공제회의 백신 부작용 지원금은 경증·중증에 관계없이 부작용에 대한 위로금·치료비 지원 차원이며, 백신 접종 인과성에 상관없이 병원 진단서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정부보상 또는 개인보험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되며, 회원 가입 기간에 상관없이 지급된다.

퀴즈를 풀면 상품권이 쏟아집니다!

회원과 함께 만들어가는 <POBA LIFE>



<POBA LIFE> 11호

독자 퀴즈 정답 및 당첨자 발표

Q. 서울시가 지역(농어촌)과 서울의 상생 및 교류를 위해 세운 매장으로, 전국 중소농가의 우수 농특산물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상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A. ③ 상생상회

당첨자

송영* (4512) 신유* (0804) 강선* (9697) 박민* (0412) 김정* (9145) 심명* (3521)
조유* (0089) 백도* (1572) 김미* (2693) 강채* (2200) 이경* (0810) 김영* (5297)
김연* (4834) 민정* (1762) 한요* (2022) 권혜* (4703) 백경* (0461) 최현* (7422)
허순* (5001) 주광* (0281)

독자 퀴즈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독자 퀴즈 당첨 선물은 퀴즈 참여 시 기입하신 휴대폰 번호로 발송됩니다.

<POBA LIFE> 12호

애독자를 위한 독자 QUIZ!

Q. 부산시 소재 창업 기업의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해 판로개척을 돕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부산의 관광 상품을 소개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복합문화공간의 이름은?

A. ① 크리에이티브샵 ② 크리스마스샵 ③ 아이디어샵

웹진 메인 페이지 상단 '독자 퀴즈 이벤트'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3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 당첨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한 개인 정보는 퀴즈 이벤트 상품 제공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